

보도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배포 일자	2026.6.30.(화) / 총3매 (본문 2, 붙임 1)	
자료 제공	• 글로벌전략연구본부 중국연구센터(+86-21-6090-0395) - 김태일 선임연구위원	
배포 부서	• 성과홍보실(강자운 행정원 051-797-4396, 이선우 실장 051-797-4381)	
보도 일시	즉시 보도 부탁드립니다.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 www.kmi.re.kr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중국 상하이서 ‘2026 KMI 중국 CEO 포럼’ 개최 - 글로벌 무역환경 변화와 해운항만 전망 논의 -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원장 조정희)은 6월 25일(목) 중국 상하이에서 제22차 ‘2026 KMI 중국 CEO 포럼’을 개최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2005년 중국연구센터를 설립한 이후 한·중 해양수산 협력을 지속해 왔으며, 2010년부터 매년 1~2회 KMI 중국 CEO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최근 글로벌 무역 변화 및 해운항만 이슈와 전망’을 주제로 중국에 진출한 우리 정부기관과 기업, 관련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변화하는 글로벌 시장 환경을 진단하고, 미래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국 경제·해운 물류 전문가와 학계, 한국 정부 관계자를 비롯해 주상하이 국적선사협의회와 주상하이 국제물류협의회, 해운·물류 기업 대표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개회식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윤성순 부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주상하이 대한민국 총영사관 최재하 부총영사의 축사가 이어졌다.

주제 발표 세션에서는 상해해사대 위야동 교수가 ‘중국의 주요 해양 문제에 대한 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해양환경보호, 해양분쟁, 해양외교, 심해·극지, 해양경계 획정 등 중국의 주요 정책을 소개했다.

이어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연경 해운물류·해사연구본부장은 ‘글로벌 물류공급망 재편과 리스크 대응을 위한 정책방향’을 주제로 최근 해운시장의 구조적 변화

와 주요 현안을 분석하고 우리 기업과 정부가 고려해야 할 정책적 시사점과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한국해양진흥공사 김정태 팀장은 ‘중동 사태와 우리 해운 해상공급망 진단’을 주제로 최근 중동 사태가 우리나라의 해운·물류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실질적 대응 전략을 제안했다.

질의응답 세션에서는 최근 글로벌 해운·물류 업계의 주요 현안과 정책 변화에 대해 참석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며 향후 대응 방향을 모색했다. 이어서 개최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주상하이 해양수산기관 간담회에서는 주중국 지역 공공기관의 해운·물류기업 지원 체계와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공공기관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조정희 원장은 “이번 포럼은 급변하는 국제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과 기관들이 미래를 함께 준비하는 중요한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활발한 연구와 교류를 바탕으로 한·중 해운·물류 산업의 지속가능한 협력과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KMI 중국연구센터 김태일 선임연구위원(86-21-6090-0395, ktizorro@kmi.re.kr)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1. 2026년 KMI 중국 CEO 포럼 단체 사진



붙임2. 2026년 KMI-주상하이 해양수산기관 간담회 사진

